



특집 _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한인사회 유례없는 '고통'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3·1정신·국난극복 저력...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각국 공포 확산 막아야... 외국인 차별 안 돼"



재외동포와 독립운동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작년에 재외동포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최재형, 안창호, 윤동주와 같은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를 재외동포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재외동포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그 엄혹한 시절에 중국, 만주, 러시아, 미주, 유럽 등지에서 풍찬노숙하며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이 재외동포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아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은 단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독립운동이 벌어졌지만,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더 치열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정든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독립을 향한 의지는 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초기 해외 이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위해 정치적 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미주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동포사회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해외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이 해외이지만의 나라였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자기 영토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내켜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은 고사하고 온갖 간섭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운동가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길렀습니다. 그만큼 독립을 향한 의지는 강렬했습니다.

현재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이어집니다.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재외동포사회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나는 독립기념관 관장이기 이전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외삼촌이 모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해외의 독립운동가는 모두 지금 기준으로는 재외동포이니 나 자신이 재외동포의 후손인 셈입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재외동포는 자신들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운동과 이어져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로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독립기념관도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앞으로 더 힘을 쏟겠습니다. **창**





04



06



16



- 02 권두언 재외동포와 독립운동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 04 특집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한인사회 유례없는 '고통'
- 06 화제 1 문재인 대통령 "3·1정신·국난극복 저력...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것"
- 08 화제 2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각국 공포 확산 막아야... 외국인 차별 안 돼"
- 09 우리말 배워봅시다
- 10 지구촌 통신원 1 "한마디로 미칠 지경"... 코로나19에 미 한인사회도 직격탄
- 12 지구촌 통신원 2 '국가비상사태' 미국의 집단공포, 생필품 진열대 쓸어 담았다
- 13 지구촌 통신원 3 '황량한 콜로세움'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로마의 일상
- 14 글로벌 코리안 우한 남야 자택격리 속 교민들 원격진료하는 의사 이상기 씨
개인재산 1조6천억 원... 온라인 쇼핑업체 키워 거부된 바칼축
파리 국제학교에서 6년째 K-종이접기 알리고 있는 백진숙 교사
- 16 한민족 공감 1 '코로나19 극복, 고국 돕자' ... 각국 동포 온정 손길 확산
- 18 한민족 공감 2 "시설에 격리된 분들 돕자"... 발 벗고 나선 베트남 한인사회
- 19 주목! 차세대 "한인들에게 선출직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 20 동포소식 "조상이 피로 지킨 대한민국... 가만 지켜볼 순 없어" 외
- 23 동포 캘린더 민주평통 카자흐스탄지회,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특위' 발족 외
- 24 유공 동포 순국 90주기 맞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
- 25 기고문 글로벌 코리안의 표상, 도산 안창호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
- 26 재단공지 2020년 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집 공고 외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한인사회 유례없는 ‘고통’

유럽·미국 한인사회 불안 극심... 자영업자, 영업중단에 생계 걱정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불과 3~4개월 전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한국으로 번질 때만 해도 팬데믹으로 가리라고는 WHO(세계보건기구)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북부지역이 새로운 감염지가 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더니 이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무서운 속도로 확산했다. 세계 최고 의료수준을 자랑하는 미국도 자유롭지 못했다. 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퍼지자 캘리포니아 주를 필두로 뉴욕 주 등 각 주 정부는 다투어 ‘자택대피령’, ‘재택근무’, ‘휴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미 대륙 전체가 정상적인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는 북반구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중남미, 아프리카, 호주까지도 팬데믹 수렁에 빠져 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각국 한인사회의 피해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관광, 숙박, 식당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상생활의 제약은 물론 심리적 불안에, 일부 자영업자는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단기간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한 이탈리아는 한인사회가 가족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집단 움직임이 나타났고 급기야 한국 정부는 우한, 일본 크루즈, 이란에 이어 3월 20일 이탈리아 체류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칠레, 온두라스, 에콰도르 등 중남미 일부 국가와 필리핀



등에서 국경이 폐쇄되거나 항공편이 끊겨 고립된 교민에 대한 귀국 지원에 나섰다.

미 캘리포니아·뉴욕 주 등 전체 주민에 ‘자택 대피령’ 내려

한인사회가 최대 규모인 미국은 식당·술집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폐쇄조치를 내린 주(州)가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는 3월 19일 주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빠르게 확산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4천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당분간 집에 머물도록 하는 전례 없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뉴욕·일리노이·코네티컷 주 등도 잇따라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환자가 급증한 뉴욕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미 언론들이 3월 21일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대형 마트에 몰려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뉴욕, LA 한인타운의 자영업자들은 인적이 끊긴 가운데 영업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미국에 이민 온 이후 처음 겪는 상황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사태가 길어질 경우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한인사회, 가족 건강 걱정엔 집단 귀국 움직임

로마와 밀라노에 집중된 5천 명 규모의 이탈리아 한인사회는 많은 교민이 생업으로 삼는 관광업 분야 일감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현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집단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현지 한인회는 3월 15일부터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임시 항공편 운항을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갔고, 정부는 전세기 2대를 직접 투입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 협의에 들어갔다. 이탈리아 거주 한인 동포들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하게 된 것은 현지 의료 사정과 무관치 않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의료시스템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지 TV에선 병원 집기류를 치운 공간에 간이 침상을 배치한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어 한인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많은 한인 동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도 로마의 경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사실상 일감이 끊겨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한인 동포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관광객 끊긴 베트남 다낭 직격탄... “휴업속출, 쥐죽은 듯”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여파로 베트남 당국이 사실상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막으면서 베트남 중부 유명 관광지 다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낭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는 곳여서 현지에 있는 한국 여행사만 100개가 넘는다. 한국인 관광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도 6천~7천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기 시작했고, 2월 초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3월 1일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사, 주점, 카페, 선물 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휴업했다.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활기 찾아가는 상하이서 한인타운엔 적막감... 문 연 가게 극소수

2월 26일 중국 상하이 훙취안루(虹泉路) 일대 한인타운. 신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일주일간 총 2명일 정도로 크게 줄면서 상하이 곳곳의 식당과 각종 상업 시설들이 대거 문을 열고 급속도로 거리가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한인타운 일대는 전혀 다른 도시와 같은 풍경이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곳을 찾는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게다가 현지 중국 당국은 각종 행정 조치를 동원해 한인타운의 영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 휴업령으로 한인동포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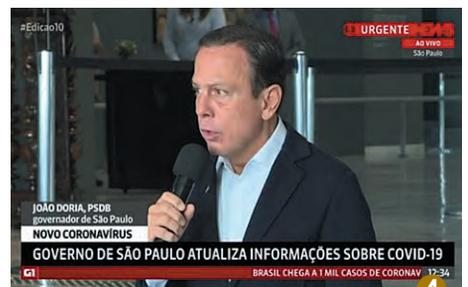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시 당국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해 3월 20일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휴업령을 내리면서 한인 동포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타운이 있는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의 주요 도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한인 동포들의 주업종인 의류업체들도 일제히 문을 닫았다. 



2



3



4

1. 전국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첫날인 3월 10일,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 콜로세움 주변이 한산하다.
2. 3월 14일 미국 뉴저지 주의 한 슈퍼마켓 체인, 사재기로 인해 화장지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3. 2월 26일 중국 상하이의 훙취안루(虹泉路) 인근 한인타운 식당가 건물 주변에 접근을 막는 선이 설치돼 있다.
4. 브라질 상파울루 주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간 전역을 격리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 “3·1정신·국난극복 저력…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것”

3·1절 기념사 “3·1운동 단결의 큰 힘 되새겨… 오늘의 위기 함께 극복”



1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함께 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3·1 독립운동으로 되새긴다”며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비상한 시국에 3·1절 기념식을 열게 됐다”고 전제한 뒤,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외환위기가 덮쳐온 1998년에도 지난 100년간 우리는 단 한번도 빠짐 없이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단결의 ‘큰 힘’을 되새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3·

1 독립운동 정신과 여러 차례 국난극복의 저력을 되새기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단결’을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나해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집중됐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는 응원,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

문 대통령은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은 지역 주민들, 헌혈에 동참한 국민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은행·공공기관·대기업의 고통 분담,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대구·경북을 거론,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며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반드시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업종별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신속 실행, 예비비 활용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의 대승적 협조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며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하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보건분야 공동협력 제안… “남북, 다양한 분야 협력 넓혀야”

문 대통령은 ‘3·1 독립선언서’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아시아 평화와 인도주의를 향한 노력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족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거론, "그 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 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언급...

"함께 위기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위해 노력하자"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한 데 이어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탓 '최소화' 한 3·1절 기념식... 훈장수여도 생략

코로나19 확산 여파는 이날 3·1절 기념식에도 미쳐 규모를 최소화해 치러졌다.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기념식에 참석한 인원은 총 50여 명에 불과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참했다. 기념식 시작 전부터 행사장 방역 소독에 실무진들이 분주한 모습이었고, 한편에서는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모습도 보였다. 입구에서는 발열 검사와 문진체크가 계속됐고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공간과 수송책도 마련됐다. 매년 열렸던 훈·포장 수여식도 이날은 생략됐다.

대구행 문 대통령... "대구만의 문제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

앞서 문 대통령은 2월 25일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를 방

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구 방문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방역·의료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태 극복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대구·경북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지원 체계를 가동했다"며 "오늘 저녁부터는 국무총리가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지역의 애로사항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정부의 조치를 지역이 체감하는 시간도 신속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상황을 대단히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자세로 정부가 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

1. 문 대통령이 3월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101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2. 3·1절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3. 문 대통령이 2월 25일 대구의료원에서 파견 의료진 등과 대화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각국 공포 확산 막아야… 외국인 차별 안 돼”

BBC 출연… 코로나19 한국 정부 대응 원칙은 ‘솔직함과 투명성’ 등 강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월 15일 영국 공영 BBC 방송에 출연,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공격 등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BBC 방송의 ‘앤드루 마 쇼’(Andrew Marr Show)에 출연, 코로나19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강 장관은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에 900명 넘게 증가했던 2월 말에 정점이었다. 오늘은 76명까지 줄었다”면서도 “분명히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 국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단순히 한국 내 확진자 수를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더 많은 나라에서 확산하고 있어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새로운 병원균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의 경험과 접근법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하는 더 나은 국제적 협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공포와 혐오증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대응을 하면서 차별함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과 관련한 얼마나 많은 사건이 보고되고 있는 줄 모른다”면서 “욕설은 물론 물리적 공격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함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필요한 협력의 정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원칙에 대해 강 장관은 솔직함과 투명성, 대중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 등을 꼽았다. 여기에 좋은 의료서비스와 긴밀한 공조 시스템 등이 뒷받침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를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확산을 최소화하고 진료를 신속히 해 온 것이 낮은 치명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1월 중순(코로나19) 유전자 서열을 배포하자마자 우리 보건당국은 연구기관과 협의한 뒤 이를 제약업체와 공유했고, 이것이 진단에 필요한 시약과 장비 개발로 이어졌다”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26만8천 명을 검사했다”고 소개했다. **▶**

바른 말 고운 말

시나브로

우리 고유의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나브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나브로'라는 말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래서 '모아 둔 돈을 시나브로 다 써 버렸다'라고 말하면 '모아 두었던 돈을 조금씩 조금씩 쓰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쓰고 말았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 '시나브로'라는 말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라는 뜻도 있어서, 다른 일을 하는 틈틈이 책을 읽다 보니 그 책을 다 읽게 됐다고 할 때도 '시나브로 책을 다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는 눈을 묘사할 때 "오전부터 시나브로 내리기 시작하던 눈은 그칠 듯 말 듯 오후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늦다

"런던은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나 느립니다." 시간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느리다'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간다는 뜻으로 '속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걸음이 느린 사람'이라든가 '손놀림이 느리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런던이 우리나라보다 9시간 느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이르지 않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느리다'가 아니라 '늦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할 시기가 됐는데도 말을 잘 못 할 때는 '말이 느리다'고 하지 말고 '말이 늦다'고 해야 합니다. 앞의 예문도 '런던은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나 늦습니다'로 말해야 런던과 우리나라 사이의 시차가 9시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가로 방향 열쇠

1.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네 가지 타악기로 연주하는 민속 음악
4. 옛날 시집가는 신부의 볼과 이마에 찍었던 것이죠
6. 수력 또는 화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
8.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서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줬던 구황작물. 땅속에서 아주 커진 덩이뿌리를 먹는다. 섬유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다
10.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학교
12.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겨 하는 일
13. ○○, 바위, 보
14. 오색 부채처럼 찬란한 공지를 가지고 있는 대형의 새
15.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줄인 말
16.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사람의 호흡과 동물의 생활에 필수적이다.
17. 숙담에 대총대총 이는 것을 빗대어 '○○ 곁할기'라고 하죠
19. 아버지의 할머니
22. 어머니를 애뜻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24. 1948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에서 국가 주석으로 권력을 독점해 개인숭배체제를 구축했다
26. 국왕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 특정인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선의 정치형태
27. 하늘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군주의 자세를 일컫는 말

▶ 세로 방향 열쇠

2. 헤엄칠 때 발등으로 물 위를 잇달아 치는 일. 또는 물을 담은 통이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그 바가지를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
3. 머리털을 깎아 다듬음
4. 나이가 어려, 나이가 많이 늙은 것을 이를 땀 연로(年老)라고 하죠
5. 생물학의 한 분야로 곤충을 연구하는 학문
7.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
8. 높은 곳에 올라가면 생기는 어지럼증이나 무서움 같은 현상
9. 수술할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미리 이 주사를 맞췄
10. 한국 군인의 위관급 계급 중 제일 높은 계급
11. 협주곡 중의 교향곡
16. 아기를 갖 낳은 여자
18. 학문연구와 학술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 또는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해 대학이 수여하는 최고의 학위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20. 투시도의 하나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양을 그린 그림이나 지도
21.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일요일'을 이르는 말
23.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어머니의 사랑
24.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음식
25. 하느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책

▶ 2020년 1월호 정답

까	정	월	대	보	름	입
치	약	계	청	매	춘	
방	관	악	기	표		
신	문	사	수	선	구	자
입	진	주	전	진	오	
생	채	기	여	국	경	선
우	동	물	원	복		
사	다	양	각	궁	합	
주	가	화	만	사	성	장

“한마디로 미칠 지경”... 코로나19에 미 한인사회도 직격탄

영업중지 등 잇단 고강도 조치에 한인타운 썰렁한 적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한인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이에 대응해 각 주와 시별로 식당 영업 중지나 모임 금지 등 고강도 조치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인사회의 고통과 신음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식당들 문 닫고 테이크아웃·배달 서비스만

3월 18일 한인 상가들이 밀집한 뉴저지 주 포트리는 썰렁한 적막감이 나돌았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점심시간임에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아예 문을 닫은 식당과 가게들이 즐비했다. 특히 뉴욕 주와 인근의 뉴저지, 코네티컷 주가 3월 16일 밤부터 공동으로 식당과 바(주점)의 일반 영업과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곳은 더욱 황량해졌다. 파티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됐다. 다만 식당이나 바의 테이크아웃(포장 음식)과 배달 서비스는 허용된다.

평소 점심때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포트리 중심가의 한 대형 한인 식당은 이날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다만 식당 출입문에는 60달러 이상을 주문하면 배달이 무료라는 안내장만 덜렁 붙어 있었다. 그러나 식당 안은 의자들



코로나19 여파에 썰렁해진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LA당국의 영업중단 조치로 포장음식만 주문받고 있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의 내부 모습.

이 테이블에 모두 올려진 채 인기척조차 없었다.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대형 한인 식당은 아예 영업을 중단했다. 식당 측은 출입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민 30년 만에 이런 상황 처음... 9·11 테러 때도 이르지 않았다”

한 식당 대표는 “여기서 30년 가까이 식당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이다. 9·11 테러 때도 이르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대책도 없고 한마디로 미칠 지경”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 내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종업원을 주급을 겨우 챙겨줬는데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전날 뉴욕시민들은 48시간 이내에 자택 ‘대피(shelter in place)’ 명령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지 한인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뉴욕 주 내 약 120개 한인 회원사를 둔 뉴욕경제인협회의 유대현 회장은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비싼데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니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도 발길 끊겨... “폭동 다시 벌어질까 봐 두렵다” 호소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도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한인타운을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LA 행정당국이 코로나



1. 인적이 끊긴 LA 한인타운 거리.
2. 3월 18일 미국 뉴저지 주 한인 상가들이 밀집한 포트리 중심가가 코로나19 여파로 텅 비어있다.
3. 코로나19 사태에 영업중단에 들어간 미 뉴저지 주의 한인식당.

19 확산을 막기 위해 LA시 전체의 식당과 유흥업소 영업 중단을 명령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영업 중단 조치 이후 LA 월셔대로 주변에 밀집한 한인타운에는 인적이 뚝 끊겼고, 마스크를 쓴 채 포장 음식을 찾으러 온 손님들만 간간이 눈에 띄었다. 월셔대로 중심가에 있는 한상가타운의 경우 한인 식당 10곳 가운데 절반이 문을 굳게 닫았다. 일부 식당은 배달이나 포장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해 가게 문을 열었으나 매출 급감으로 한숨만 크게 내쉬었다.

한 음식점 주인은 “매출이 평소보다 80~90% 줄었다”며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문제는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다른 가게의 종업원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일자리가 끊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1992년 LA 폭동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몇 달간 지속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면서 LA 폭동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까 봐 그게 가장 두렵다”고 호소했다.

현지 진출 기업들도 초비상... 출장 막히고 재택에 전화 회의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초유의 상황에 사실상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대기업 인사는 경영 환경이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3월 16일부터 출근 또는 재택근무를 직원들의 자율에 맡겼으며, 현재 약 80%에 가까운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한 직원들은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이나 배달 서비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회의도 모두 영상 회의나 전화 회의(콘퍼런스콜)로 대체하고 있다. 현지 사업 파트너들과의 회의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출장도 사실상 다 막혔다. 한 대기업은 한국에서 출장을 오는 인사는 미국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출장도 현지 법인장의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은 미국 출장자에 대해 한국으로 귀국 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상 출장을 오갈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LA 지역의 한인 여행사들과 소상공인들도 돈줄이 마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를 내기가 버거울 정도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곳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 여행을 문의하는 손님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한인타운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자 LA 총영사관은 최근 LA와 인근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인 상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장]**

연합뉴스 이귀원 뉴욕 특파원
정윤섭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국가비상사태’ 미국의 집단공포, 생필품 진열대 쓸어 담았다

대형마트마다 사재기 인파... 화장지·음식료품 곳곳 텅 빈 진열대

주말인 3월 14일 오전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대형마트 체인. 출입구 앞에선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점원은 쇼핑카트 손잡이를 세정제로 꼼꼼하게 소독하고 나서야 하나씩 손님들에게 넘겨줬다. 인파로 북적이는 마트 내에서도 손님들은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는 듯 가급적 거리를 두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계산대 점원의 손에는 일일이 일회용 비닐장갑이 끼워져있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처음으로 주말을 맞은 미국 전역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하고, 비상사태는 얼마나 장기간 진행될지를 전혀 예견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상당수 주의 각급 학교들은 연쇄적인 수업 중단에 들어가면서 ‘최소 2주’로 공지했지만, 학부모들은 4월 봄방학까지 최소 한 달을 대비하는 표정이다.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를 찾은 뉴욕 교민 정 모 씨는 “다음 주부터 최소 2주간 학교 수업이 중단됐는데, 4월 봄방학까지 한 달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당장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집에만 머무는 상황인데 먹거리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불안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3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사재기(panic buying) 광풍’



13월 14일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한 한인마트의 판매대에 고객별 구입 수량을 제한하는 공지문이 붙어 있다.

으로 이어졌다. 동부의 뉴욕부터 서부의 로스앤젤레스(LA)까지 대형 마트마다 인파가 몰렸고, 주요 생필품 진열대마다 사재기가 훑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인마트에도 백인 등이 평소보다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건을 사기 위해 아시아계 마트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진열대마다 판매 수량을 1~5개씩 제한하는 공지가 달렸고, 일부 매장의 계산대에선 더 많은 수량을 요구하는 고객과의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뉴저지 주의 슈퍼마켓 체인 ‘스톱앤드숍’ 출입구엔 애초 밤 11시까지인 영업시간을 밤 8시로 앞당긴다는 공지문이 붙었다. 선반을 다시 채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동부에서 36년째 사는 재미동포 김 모 씨는 “지난 2000년 Y2K

사태를 앞둔 1999년에도 사재기가 극심했는데 그때 이후 가장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교적 주말이면 한산한 도심권도 사정은 마찬가지.

워싱턴DC 로건서클 인근의 대형마트 자이언트에는 주말 오전 9시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손 세정제와 비누 등 일종의 ‘코로나19 대응용품’들은 일찌감치 동났다. ‘사재기 광풍’은 생수, 쌀, 빵, 유제품 등 필수 음식료품 쪽으로 이어졌다.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의 야채 판매대도 등성등성 행한 모습이었다. 홀푸드의 한 점원은 “아침에 문을 열면 오전에만 야채 절반 이상이 팔려나간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대비하듯, 스파게티 면류를 비롯한 건조 식자재 또는 냉동식품 등도 찾는 손길이 많아지면서 판매대에 남은 물량이 적었다. **[장]**

송수경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황량한 콜로세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로마의 일상

대형마트서 1m 간격 줄 선 시민들... 관광객 썰물처럼 빠진 거리는 한산

이탈리아 정부의 전국 이동제한령 발효 첫날인 3월 10일, 인구 300만 명의 수도 로마에선 여느 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2월 21일 북부 롬바르디아 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인한 뒤, 하루하루 반도 전역으로 무섭게 확산할 때도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한 로마 시민들이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평일인데도 교통량은 물론 거리를 다니는 주민 수도 확연히 줄었다. 대형마트에서는 과거 보기 힘든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이른 아침인데도 일렬로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다. 마트 측이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줄 선 시민 중 많은 수는 마스크를 썼다. 마트 직원들도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마스크 쓴 시민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연간 3천여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수도 로마는 이탈리아 경제·금융중심지인 밀라노와 세계적인 수상 도시 베네치아보다도 관광객이 많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오버 투어리즘’을 지적하는 지역 당국과 주민들 우려가 끊이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많던 관광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로마 시내에는 텅



이탈리아 정부가 주민 이동제한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3월 10일 오전 로마 시내 한 대형마트 앞 풍경. 마스크를 쓴 부부가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은 채 지나고 있다.

비다 못해 황량해 보이는 상황이 됐다. 이탈리아는 물론 로마의 상징으로 꼽히는 콜로세움 주변 역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휼했다. 마스크를 쓴 가족 혹은 커플 단위 관광객이 드문드문 눈에 띄기만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콜로세움 내부 입장이 금지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전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콜로세움 인근의 한 카페 업주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지만, 콜로세움 주변이 이처럼 쓸쓸해 보이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업소는 덩달아 최근 며칠 새 매출까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콜로세움 인근 주요 관광 명

소가 모여있는 역사중심지구(Centro Historico)의 거리도 마찬가지다. 인적이 드문 데다 음식점·카페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아 연휴나 7~8월 여름 휴가 때를 연상케 한다.

로마의 관문 역할을 하는 기차역 ‘테르미니’도 유동 인구가 급감해 쓸쓸한 분위기였고, 테르미니 인근 중국인 상점들은 휴업 안내문을 내붙인 채 거의 예외 없이 셔터를 내린 상태다. 테르미니 역사 내 플랫폼 앞에선 이동 사유를 적은 본인진술서를 경찰에게 내보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출·퇴근을 포함한 업무상 필요성, 가족과의 만남, 건강상 이유 등을 제외하고는 거주지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에 있는 경찰은 본인 진술서를 유심히 훑어보고 주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즉석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했다. 기차를 타기 원하는 시민과 이동이 가능한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경찰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도 흘렀다. 테르미니같은 기차역은 물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국도 등 주요 이동 경로에 경찰이 배치돼 모든 이동 승객을 전수 점검한다고 한다. **▶**

전성훈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

※ 전 특파원이 보내온 르포 기사는 이탈리아 상황이 훨씬 악화하기 이전인 3월 10일 작성된 것입니다.



우한 남아 자택격리 속
교민들 원격진료하는
의사 이상기 씨

“한국인 의사 저밖에 없는데 돌아갈 수 없어… 이젠 한국이 걱정”

“저도 사실은 겁이 나죠.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도 우한에서 의사 직업을 가진 한국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으니 남아야죠.”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중국 우한(武漢)에 남아 재외국민(재외동포)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사 이상기(50) 원장은 2월 22일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의사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교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남게 된 것”이라는 한 마디로 우한 잔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한에 있는 한·중 합작 병원에서 일하던 그는 당초 2월 12일 우한을 출발한 3차 전세계 탑승을 신청하고 짐을 모두 꾸러 놓았지만 끝내 타지 않았다. 우한에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교민이 남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계속 현지에 남기로 한 것이다. 당초 우한 총영사관의 일부 공간을 빌려 교민 전담 진료소를 운영하려던 그는 우한 당국의 시민 자택격리 조치에 따라 집에 홀로 머무르면서 화상 대화나 전화로 매일 이곳 한인들은 원격 진료하고 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온 한인 동포가 86명입니다. 한 분이 대표로 등록되면 가족들이 4~5명 같이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한과 후베이 성에 남은 한인 동포가 2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4~5가구 정도 상담을 해 드립니다. 다행히 아직은 발열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증상이 다각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과 방역용품의 현장 전달은 환자를 상담하고 이런 약품이 필요하다고 알리면 총영사관에서 직접 가정에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다. 일상생활에 대해 이 원장은 이렇게 전했다. “저나 이곳 동포 모두 자가 격리 때문에 자택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도 안 됩니다. 단지에서 야채 한 봉지에 얼마 식으로 공동 구매를 하는데 물량이 부족합니다. 쌀이 있어 밥을 하고 야채를 조금 삶아 총영사관에서 가져다준 김치, 김, 참치 등 그런 것과 같이 먹습니다.”

“고려인 여성 사업가, 러시아 최대 여성 갑부 됐다”

고려인(옛 소련권 토착 한인) 여성 사업가가 러시아 최대 여성 갑부가 됐다. 러시아 온라인 쇼핑업체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 창업자이자 대표인 타티야나 바칼축(44)이 러시아 최대 여성 갑부에 올랐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월 20일 보도했다. 바칼축의 개인재산은 14억 달러(약 1조6천억 원)로 12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 루쉬코프 전(前) 모스크바 시장 부인 옐레나 바투리나를 제쳤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바칼축이 여성 갑부 1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그가 소유한 와일드베리스가 88%나 성장하면서 시장 가치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개인재산 6억 달러로 러시아 갑부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바칼축은 와일드베리스가 계속 번창함에 따라 지난해 바투리나



에 이어 러시아 여성 갑부 2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루쉬코프 전 시장의 부인인 바투리나는 건설업과 호텔업 등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여성 갑부다.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 주(州) 출신의 바칼족은 어릴 때는 김 씨 성을 쓴 고려인이 다. 모스크바 주 도시 콜롬나의 사회인문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교사와 과외 선생으로 일하던 그는 28세 때인 2004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독일 의류와 신발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산 휴가를 받고 쉬던 중 어린아이들 둔 여성들이 얼마나 쇼핑이 어려운지를 깨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2005년 IT 기술자인 남편 블라디슬라프 바칼족이 사업에 가세해 와일드베리스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 사업에 뛰어들었다. 와일드베리스는 이후 성장을 계속해 2017년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됐고, 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권 국가들에도 사업망을 갖추었다. 지난해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로도 진출하면서 EU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취급 품목도 의류, 신발, 화장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자제품, 책, 보석류, 식료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개인재산 1조6천억 원...
온라인 쇼핑몰체 키워
거부된 바칼족

“마술 같은 멋진 韓 종이접기, 프랑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의 실용적인 종이접기를 세계에 알리려면 관련 서적의 다국어 번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국제학교에서 6년째 K-종이접기를 전파하는 재봉동포 백진숙(47) 교사는 2월 11일 “프랑스 서점에서는 K-종이접기에 입문할 수 있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 번역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이접기 세계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펴낸 관련 번역서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004년 남편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 그는 한국에서 종이접기를 접했고, 파리에 온 이후 독학으로 배워 현지 아이들을 지도했다. 그러다 최근 종이문화재단의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2014년 자택 근처에 있는 한 국제학교의 유치원 보조 교사로 근무하면서 종이접기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종이를 접고, 자르고,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수업이 많지 않아 학부모들이 이주 좋아했어요. 크리스마스나 학기 말에는 그동안 고마웠으며 부모님들이 초콜릿 등의 선물도 보내줬는데요. 학부모들이 보조 교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교사들이 놀라워했죠.”

국제학교 수업 후 그는 파리에 있는 국공립학교에서 2년째 방과 후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도서관이나 유치원, 학교, 노인 요양병원 등에서 강의 요청도 받아 수시로 종이접기 수업을 하고 있다. 2년 전 프랑스 종이접기협회 회원이 된 그는 매주 목요일 오후 종이접기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생활 종이접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프랑스인들에게 K-종이접기를 보여주고 접해볼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혼자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 힘에 부쳐요.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접하게 해줄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싶어요. 마술 같은 멋진 수업을 그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파리 국제학교에서
6년째 K-종이접기 알리고 있는
백진숙 교사



‘코로나19 극복, 고국 돕자’ ... 각국 동포 온정 손길 확산

십시일반 모금운동과 마스크 보내기 등에 동참

코로나19 여파로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각국 재외동포들이 도움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재외동포사회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사정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모국돕기 온정의 손길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재외동포의 모국돕기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모금운동과 마스크 보내기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모국돕기에 동참한 재외동포와 단체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미·중·캐나다·말레이·싱가포르·홍콩·몽골·독일 등 한인들 “힘 보태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해외민주통일연대, 남가주호남향우회, LA한인상공회의소 등 11개 단체는 3월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대구에 마스크를 보내기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제구호 개발 NGO(비정부기구)인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는)는 10억 원 규모의 1차 긴급 구호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욕지구 한인 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는 “미주 한인사회는 그동안 모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앞장서 정성을 모아 지원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호소하며 현재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 김영호 전 한인회장은 3월 4일 현지 영사 출장소를 찾아 대구시에 기부해달라며 마스크 4천 장을 전달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上海) 한인사회가 ‘민관합동 상하이비상대책위원회’로 하여금 3월 16일 마스크 20만 장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선양(瀋陽)지역 5개 한인단체와 25명의 한인으로부터 ‘코로나 성금’ 1천217만 원을 모금해 13일 한적에 기탁했다. 동관한국인회(회장 문계준)도 12일 3천900만 원을 한적 대구지부로 보냈고, 앞서 3일에는 중국한국인회(회장 박원우)가 대구시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했다.



민주평통 캐나다 토론토협의회(회장 김연수)는 3월 4일 긴급 회의를 열어 모국에 마스크와 방역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모금을 하기로 했다. 우선 2주 동안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정성을 모아 본국 사무처에 보낼 예정이다. 말레이시아한인회(회장 이태수)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고국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19 성금 모금’을 벌일 계획이다. 한인 식당과 마트 등에 모금함을 설치하는 한편, 한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1.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대구를 돕기 위해 성금 6천700만 원을 모아 3월 17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전달하고 있다.
2. 재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이 위기를 속히 극복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금 2만1천여 달러(2천500만 원)를 기부했다.
3. 중국한국인회가 3월 3일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해 대구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긴급 구호 물품으로 마스크 5만 장을 전달했다.(사진·중국한국인회 제공)



대구 돕기에 나선 홍콩 한인사회도 성금 1천800만 원과 마스크 5만7천여 장을 3월 13일 한적에 기탁했다. 재독일영남향우회(회장 김이수)와 독일 함부르크한인회(회장 방미석)는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 30여 개국 전·현직 한인회장 모임인 아프리카중동한인회·한상총연합회(회장 김점배)는 조만간 성금을 고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대한민국 돕기 성금 운동으로 모은 6천700만 원을 3월 17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곧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 대구지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3월 5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한 모금운동에는 한인회·상공회·한국국제학교 등 90여 단체·개인이 참여했다. 몽골한인회(회장 국중영)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코로나 19 극복 모국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한 후 대구시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한인회도 동참

캄보디아 한인사회도 민주평통 캄보디아지회(지회장 문병수)를 중심으로 정성을 모으고 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한인회(회장 원현희)는 '대구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모은 성금 800만 원을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교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대구·경북이 위기를 속히 극복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금 2만1천여 달러(2천500만 원)를 기부했다. 그동안 재인도네시아 대구·경북연합회가 중심이 돼 모금 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재인

도네시아 영남대 동문회가 5천만 루피아(420만 원)를 쾌척했다. 성금은 3월 5일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를 통해 전달됐다.

“모국을 돕는 일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하용화)는 3월 19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관, 채혈 인력,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마스크 20만2천 개를 기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협의회도 대구·경북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8천만 원), 서남아협의회(550만 원), 브라질협의회(345만 원), 중국 선양협의회(540만 원) 등이 모금을 한적으로 보냈고,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와 호주협의회는 개인용 손 소독제 5천 개를 기부했다.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회장 윤만영)가 각종 체육회 회장·자문 위원들로부터 모은 310만 원을 한적 경북지회에 기탁했고, 미안마한인회(회장 전성호)는 방역 마스크 3만 장을 공장에 주문했고 3월 31일까지 모금운동도 벌여 대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전 회장은 “대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모국을 돕는 일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있다”고 밝혔다. **창**

“시설에 격리된 분들 돕자”... 발 벗고 나선 베트남 한인사회

승용차로 최장 4시간 달려 생필품 전달... 박항서 감독도 동참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대사관과 하노이한인회를 비롯한 베트남 한인사회가 3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현지 시설에 격리된 한국인과 베트남 국민에게 의약품과 간식, 생필품 등을 전달하려고 모금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캐치프레이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코로나19가 급증한 대구·경북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에 대한 시설격리를 시작한 2월 28일부터 한국대사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베트남 사무소 등과 함께 격리시설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현지에서 있는 한국 식료품 유통 체인인 K마켓도 필요한 물품을 내놔고, (주)오리온은 초코파이 1천 상자를 후원하기로 했다. 휴일인 3월 1일에는 하노이한인회와 하노이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등 한인 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몇 시간이나 달려야 하는 격리시설들을 돌며 살충제와 컵라면, 커피, 생수, 기저귀, 물티슈 등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시설에 격리된 사람들을 위로했다.

한인사회는 또 베트남 북부 지역에만 한국인 100여 명과 한국에서 귀국한 베트남 국민 등 1천700여 명이 시설에 격리된 것으로 파악되자 이곳 한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에 돌입했다.

한국인은 물론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설에 격리된 현지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다. 또 3월 1일부터 쾡닌 성 번돈 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숙소에 격리된 한국인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곳은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있다. 동참을 호소하는 배너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퍼지면서 기부행렬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국민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도 1억 동(515만 원)을 쾌척했다. 박 감독은 “격리된 우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3월 1일 베트남 북부에 있는 한 군부대에 격리된 한국인들에게 윤취 하노이한인회 이사(오른쪽)가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사진·하노이한인회 제공)

라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보태기로 했다”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또 “한국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있는 한인회와 코참,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도 격리시설에 있는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호찌민에서는 2월 29일까지 입국한 한국인을 대부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지만, 자가격리에 앞서 장시간 보건소에 격리되는 경우가 나오자, 한인회는 도시락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베트남 당국이 한국발 여행기를 호찌민 공항 대신 이곳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켄터 시 켄터 공항에 내리도록 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설격리가 시작되자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갖췄다. 켄터한인회와 협력해 별도 시설에 격리된 한국인에게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

“한인들에게 선출직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미 인디애나 주 의회 최연소 첫 아시아계 의원 크리스 정

가 급적 청년층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기성 정치인들은 외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설령 당 공천을 받더라도 정계에 진출하려는 젊은 후보가 지명도와 조직을 갖춘 상대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미국도 역시 정치 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역사를 새로 쓴 본보기를 보여준 주인공이 미 인디애나 주 하원의원인 크리스 정(Chris Chyung)이다. 한인 2세인 그의 나이는 27세. 의회선거가 있었던 재직년에는 25세였다. 인디애나 주 의회 사상 첫 아시아계이자 최연소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선거 승리가 더욱 빛나는 것은 공화당 소속의 거물급 현역 정치인을 물리쳤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 인디애나 주 15 지역구에서 맞붙은 상대 해롤드 슬래거는 3선 의원인 데다 10년간 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조직과 정치자금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탄탄했다. 유권자 구성도 백인이 월등히 많다. 미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에서 아시아계 비율은 2.4%에 불과하고 15 지역구는 1.6%이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아시아계의 20대 정치 신인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 크리스 정의 말을 빌리면 발로 뚫 결과였다.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3만 가구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타운홀 미팅 등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계획과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인으로 오인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유권자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크리스 정의 “피부색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최상의 후보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믿고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그가 정계로 뛰어든 것도 흔치 않은 선택이었다. 한국에서 이민한 부모는 모두 의사이고 누이도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로서는 대부분 한인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의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길이었을지 모른다.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월가 진출도 생각했으나 인



미 인디애나 주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는 크리스 정 의원.

턴십 과정을 거치면서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고향인 인디애나 주로 돌아와 가까운 시카고에 있는 부동산회사에서 일했다. 정치와 전혀 무관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가 정치인이 되려고 마음먹은 것은 공립학교 예산 부족 등 잘못된 법률의 폐해를 보면서 이를 고쳐야 하겠다고 결심한 데서 비롯됐다. 또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민규제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을 택했다. 인디애나 주 민주당 지도부는 크리스 정의 선거운동을 당 선거전략의 ‘본보기’로 평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크리스 정의는 재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맡았다. 그는 “의원직이 맘에 든다. 매우 도전적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4일 2년 임기가 끝나는 크리스 정의는 의정활동과 재선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주말이면 곳곳을 다니면서 정치활동에 필요한 모금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는 “한인들에게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조상이 피로 지킨 대한민국… 가만 지켜볼 순 없어”

재중 독립운동 지사 후손들,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아 보내와



3월 18일 중국 상하이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김광릉(오른쪽)씨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최영삼 총영사(오른쪽 두 번째)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중국에 사는 독립운동 지사 후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을 돕겠다면서 성금을 모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3월 18일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임시정부 내무위원을 지낸 김복형 지사 후손인 김광릉(金廣陵)씨를 비롯한 중국 각지의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55명이 성금 6만 위안(약 1천만 원)을 모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모금에 동참한 이들은 이동화, 강인수, 오영선, 유기석, 김산, 김성숙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 지사 20명의 후손이다. 이들은 각자 여러 사연으로 중국 땅에서 살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지사가 중국에서 숨지고 나서 현지에 있던 자손들이 어려워진 경제 형편 탓에 광복 후에도 미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뿌리내린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친 한국을 돕기로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모금 발기문에서 “우리의 혈관 속에는 한민족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 국민을 괴롭히고 있고, 한국 정부와 동포들이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광릉 씨는 “재중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대화방에서 제안이 올라왔는데 호응이 너무나 뜨거워 모금에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한민족인 대한민국 국민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도 한국사회 일원” 중국동포 청년들 대구에 ‘응원 기부’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세제·핸드크림 등 대구 의료진에 전달



3월 11일 국내 중국동포 유학생으로 이뤄진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대구 의료진에게 보낼 구호물품 60여 박스를 준비한 모습.

“대구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모금해서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보내면 어떨까요?”

중국동포 유학생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 대구에서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지 의료진이 열악한 여건에서 약전고투 중이라는 소식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는 움직임이었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3월 4일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졸업 후 중국으로 귀국한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모금 시작 이틀도 되지 않아 400여만 원을 모았다.

모금운동에 동참한 장지화(34) 중국 변호사는 3월 12일 “의료진이 간단한 생활필수품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모금을 진행했는데 단기간에 목표보다 많은 금액이 모여 깜짝 놀랐다”며 “대구의료원에 연락해 무엇이 부족한지 물어보니 ‘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빨래가 많이 밀려 세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했다.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박미혜(28) 씨는 “뉴스를 보니 의료진이 종일 장갑을 낀 채 일하고 손 소독을 자주 하는 탓에 손이 많이 상했더라”며 “핸드크림을 준비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금액으로 세탁세제 160개, 핸드크림 335개, 비타민 음료 1천 개를 박스 60여 개에 담아 전날 대구의료원으로 보냈다.

“조국에서 쓸 건데”… 인니 韓 봉제업계, 방호복 220만 장 납품

한국 질병관리본부 계약사 하청… 7차례 전세기로 긴급 수송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 한인 봉제업체들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방호복 220만 장을 생산하기 위해 야간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 엄정호 씨 제공)

인도네시아 자바 섬 반동의 한인 봉제공장 ING 인터내셔널. 38명씩 긴급 편성된 10개 라인 작업자들은 3월 10일 늦은 밤까지 불을 켜고 실새 없이 재봉틀을 돌려 두꺼운 흰색 원단으로 방호복을 생산했다. 이 업체 엄정호 사장은 “내 고향이 대구다. 친·인척들이 다 대구에 있다”며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이 100% 사용할 방호복이기에 최선을 다해 좋은 제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엄 사장은 “봉제공장을 한 지 15년째인데, 이렇게 급히 주문받아 물량을 생산해보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를 포함해 서자바 주 한인 봉제업체 6곳은 2월부터 4월 초까지 방호복 총 220만 장을 생산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한다.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을 위해 재인도네시아 한인 봉제업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방호복의 한인 업체 생산을 총괄하는 김재열 대경(DaeKyung) 인도네시아 사장은 “질병관리본부가 한국 내 업체와 방호복 납품 계약을 맺었고, 그 하청을 받은 것”이라며 “방호복은 처음 만들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흔쾌히 생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를 통해 6개 한인 업체와 손잡았다. KOGA에는 280여 개 한인 봉제 업체들이 속해 있다. 그는 “정상시라면 기존 계약 물량 때문에 갑자기 공장 라인을 빼 방호복을 생산하기 어려울 텐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원단 수급 차질이 빚어져 한인 봉제업체들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국 하원 통과… 상원 관문 남아

여야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 미국 의회서 법안 추진은 처음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장면.

미주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상원에도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상원의 문턱까지 넘어선다면 미주 한인들의 염원인 북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3월 9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91표, 기권 39표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재미 한인과 관련 논의를 하도록 했다. 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논의는 지난해 3월 민주당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의 발의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하원 외교위에서 처리됐다. 하원은 이날 북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도 391표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과 관련한 결의안이 다뤄진 적이 있지만, 법안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GC에 따르면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미주 한인과 북한 친인척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다. 남북 간에는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어서 참가 자격에서 아예 제외됐다.

한인 2세, 美 최고 교육자상 수상... 2만5천 달러 상금

수학 교사 주미경 씨, 학생들 AP 미적분 시험에 도움 준 공로



밀켄교육자상 받은 재미동포 한인 2세 주미경 교사.

재미동포 주미경(미국명 캔디스 해링턴·40) 씨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에게 주는 ‘밀켄교육자상’을 최근 수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미션비에호에 있는 캐피스트라노 밸리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주 씨는 ‘2019~2020년 밀켄교육자상’에 선정돼 2월 12일 이 학교에서 상금 2만5천 달러(약 3천만 원)를 받았다. 주 교사는 지난 3년 동안 교육한 학생들 가운데 95% 이상이 대학 조기 이수 과정(AP) 미적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주 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의 AP 미적분 평균 시험 점수는 5점 만점 중 4.1점으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1985년 제정된 이 상은 로스앤젤레스 샌타모니카에 본부를 둔 밀켄 재단이 미국 전역의 각급 학교와 교육구가 추천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준다. 오랜 전통에 빛나는 이 상은 심사의 엄격함과 상금의 규모 등이 최상급이어서 ‘교육계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올해는 주 교사를 포함해 38명이 수상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주 교사는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어바인에 있는 콘코디아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주입식으로 수업하지 않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잃지 않게 노력했다”며 “많은 학생이 수학에 대해 실수를 많이 한다고 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새로운 점들을 배우며 실수를 줄여나간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영화 ‘기생충’ 만큼 유명한 한국요리”... 브라질 신문, 한식 집중 소개

한류 관심 급속 확장 기대... 아카데미 수상 축하 리셉션도 열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석권한 데 맞춰 브라질 일간 ‘폴라 지 상파울루’가 한국 음식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열풍에 힘입어 브라질에서 한류 인기가 수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석권하면서,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형성돼온 브라질 한류가 빠르게 저변을 넓히고 한류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브라질 유력 일간 ‘폴라 지 상파울루’는 2월 13일 ‘(영화) 기생충만큼 유명한 한국요리’라는 제목 아래 한식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 신문은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의 주인공인 ‘기생충’이 한국요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한인 동포사회와 한국 음식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이 신문은 쌀밥과 김치, 반찬류 등을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꼽으면서 고추장·깻잎 등 전통 식자재, 불고기·비빔밥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식을 알렸다. 이어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 5만여 명 규모의 한인타운이 조성돼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음식점의 메뉴와 위치 등을 안내했다. 또 1960년부터 시작된 한인 이민사와 함께 삼성·LG·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실도 다뤘다.

한편, 상파울루 한국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은 전날 밤 시내 총영사 관저에서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축하하는 리셉션을 마련했다. 리셉션에는 브라질의 문화예술계와 언론계 인사, 한국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화 ‘기생충’과 한국 영화의 세계적 성공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민주평통 카자흐스탄지회,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특위' 발족

민주평통 카자흐스탄 지회(지회장 김상욱)가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2032 특위)를 구성했다. 민주평통 카자흐스탄지회는 2월 21일 2032 특위 구성과 김상욱 위원장, 김 콘스탄틴(고려일보 주필), 한넬리(교수) 부위원장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지회는 특위를 통해 고려인 동포사회와 현지인에게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로 했다.



한글날 제정 美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태권도의 날' 도 발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자는 제정안(ACR 185)이 3월 9일 발의됐다.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를 주도했던 새런 쿼크-실바 하원의원(민주당·사진 오른쪽)이 또 앞장섰다. 이 제정안은 회기 만료일인 8월 31일 이전 하원과 상원 전체 표결에 회부될 예정이다. 9월 4일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태권도의 날이다.

캐나다 입양 한인 위한 한국문화 캠프 '성황'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회장 이진수)는 2월 15~16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입양 한인 가정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월 20일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캐나다 지회(회장 김연수), 온타리오한국학교협회(회장 신옥연), 캐나다한인양자회(회장 임승우)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31개 입양 가정의 가족 10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김밥과 떡김말이 등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21세기 장보고를 찾습니다" 글로벌재단 한상 어워드 공모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은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5회 장보고 한상(韓商) 어워드'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 상은 국외에 이주해 기업을 창업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문화영토 확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해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 한상들에게 수여된다. 홈페이지(www.changpogo.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changpogof@gmail.com)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베트남 호찌민한인회, 구찌 격리소에 마스크 등 물품 지원

베트남 호찌민 한인회(회장 김종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한국·베트남의 우호를 위해 3월 11일 구찌 격리소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했다. 물품은 현지 한인 단체와 기업, 개인들이 한인회에 기탁한 성금과 후원으로 마련했다. 한인회는 그동안 격리된 한인들에게만 물품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300여 명의 베트남 격리자에게도 전달했다.



호주 퀸즐랜드 한국학 연구소 개소... 동포 기업 후원

호주 퀸즐랜드대학 내 '한국학 연구소'가 2월 5일 문을 열었다. 연구소 개소를 후원한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이숙진(사진) 부의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력 제고, 통·번역 소통,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연구라는 목표를 내걸고 연구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초대소장은 이 대학 한국어학과 정재훈 교수와 아이삭 리 박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숙진 부의장은 대양주 한인 최대기업인 제마 이 홀딩스 그룹을 경영하는 CEO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순국 90주기 맞은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

100주년 맞은 청산리 전투, 한민족 자주독립 역량 입증한 대첩

독립운동사에 기념비적 전투로 꼽히는 청산리(靑山里) 전투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김좌진·홍범도·최진동 등이 일본군 1개 여단을 사살해 한민족의 자주독립 역량을 입증해 보인 대첩으로 평가된다.

청산리 전투를 이끈 백야(白冶) 김좌진 장군은 1889년 12월 16일 충남 홍성의 안동 김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3세 때 형 김경진이 15촌 아저씨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가정의 책임을 떠맡았다. 15세 때는 집에서 부리던 노비 50명을 모아놓고 종 문서를 불사른 뒤 논밭을 나눠주었다. 1905년에는 서울로 올라와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졸업했다. 가산을 정리한 돈으로 고향에 호명학교를 세워 운영하다가 1907년 다시 상경해 구국운동에 나섰다.

1910년 한일 강제합병이 단행되자 김좌진은 부호들을 상대로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 191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2년간 옥살이를 했다. 1913년 9월 출옥 후 홍성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중 또다시 10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1915년 대한광복회에서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른 뒤 1917년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에서는 기미독립선언에 앞서 발표된 무오독립선언에 서명하고 대중교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정의단 군사책임자가 됐다. 대한정의단은 1919년 12월 북로



김좌진 장군 영정.

군정서로 이름을 바꿨다. 북로군정서는 독립을 위한 사관연성소를 설치했다.

청산리전투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이 1920년 10월 21일부터 엿새간 중국 지린(吉

林) 성 허룡(和龍)현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군을 대파한 싸움이다. 북로군정서가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군 전사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을 포함해 1천257명이고 부상자는 200여 명으로 기록돼 있다. 독립군의 피해는 전사자 130여 명, 부상자 220여 명에 그쳤다.

김좌진은 1925년 3월 김혁과 함께 신민부를 조직하고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을 맡았다. 성동사관학교도 세워 무관을 양성했다. 1929년 7월 신민부와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 제휴해 한족총연합회가 결성되자 위원장에 추대됐고, 만주에 거주하는 동포의 교육과 민생에 주력했다. 중국의 항일 세력과 연합하여 대일 항전을 준비하던 중 1930년 공산당원의 흉탄을 맞고 숨을 거뒀다. 암살 동기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김좌진과 함께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에서 활동한 이강훈 전 광복회장은 “일본 형사의 회유로 변절한 김봉환(일명 김일성)이 고려공산당 청년회원이며 재중청년동맹원인 박상실을 사주해 암살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중국 동북3성 지역 한인회 인사 등은 올해 1월 21일 헤이룽장 성 하이린(海林) 한·중 우의 공원에서 김좌진 장군 순국 90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황**

글로벌 코리언의 표상, 도산 안창호



우리 근·현대사에서 거래와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수많은 선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후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훌륭한 인격과 탁월한 업적은 물론이고 사상적으로 남·북한과 재외동포사회, 나아가 세계인류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다면 도산만한 분이 있을까.

올 3월 10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이 서거한 지 82주년이 되는 날이다. 도산은 무엇보다 인격훈련(人格訓練)을 강조하였다. 도산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생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고결한 삶을 살았다. 정직과 진실, 헌신과 봉사의 산증인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60평생을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살았다. 진정한 애국지사로서의 삶이었다.

당대 최고의 민족지도자였던 도산의 참모습은 지금부터다. 일찍이 청년 시절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운동의 선구자였던 그는 만년에는 자유·평등의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내다보며 스스로 대공주의(大公主義)라 이름 지은 위대한 정치사회사상을 정립해 주창하였다. 동시에 애기애타(愛己愛他)라는 수준 높은 인생론까지 남겼다.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하고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현실 감각을 두루 겸비한 탁월한 사상가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도산의 행적과 영향력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중국 본토와 만주,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 일본, 유럽, 멕시코, 쿠바, 필리핀, 심지어 호주 등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재외동포들을 일깨우고 결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속과 해외 독립운동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02년부터 1932년까지 몸소 재외동포가 되어 공립협회,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등 재외동포사회의 실력양성과 인재육성에 매진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도산만큼 개인과 사익의 경계를 뛰어넘어 민족과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던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도산은 단지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 민족지도자의 한 분 정도로 추모하는 데 그칠 인물이 아니다. 도산은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문화·

경제영토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진심으로 닮고 싶은 '롤 모델'이자 2,500만 북한 주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글로벌 코리언'의 표상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6학년 2학기(가) 교과서에 '재외동포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라는 표현이 기존의 도산 연설문과 함께 실릴 수 있었다고 본다.

바야흐로 도산이 꿈꾸었던 평화와 공영의 세계대공(世界大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남·북한은 물론 재외동포까지 한민족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산과 같은 상징 인물이 필요하다. 이는 그가 몸소 강조하고 실천했던 인격훈련과 대공주의와 애기애타에 대한 이해를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2020년 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차세대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주요인재 발굴

기간: 2020. 9. 14(월) ~ 9. 18(금), 4박 5일

지역: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 및 지방(미정)

신청자격:

- 만 25~45세의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체류자 등 10년 이상 현지 에 계속 거주한 자
- 재외동포 교류촉진 및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분야: - 정치, 경제, 법률, 주요 언론, 문화, 예술 및 국제기구 종사자 등
-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전문가 단체의 임원 등
- 경력 및 활동내용이 동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모집인원: 국외 100명 내외

신청 및 접수:

- 개인 신청: 2020. 3. 2 ~ 4. 30(목), 한국시간 기준
- 선발 결과 공지: 5. 22(수) 이내 (개인 이메일, 관할공관 통보)
- 온라인 지원신청(www.korean.net)

문의: • 사업 관련 문의: 차세대사업부 이가영
+82-64-786-0272, kylee@okf.or.kr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82-64-786-0292(제주) / +82-2-3415-0193(서울)

2020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기간 및 장소: 2020. 8. 5(수) ~ 8. 14(금), 9박10일, 국내(제주)

대상 및 인원(총 70명):

- 재일동포 가족: 만 10~13세 재일동포와 동반부모(재일동포)
- 인솔 스태프(5명 내외, 통역 및 생활지도 담당)

주요내용: - 수준별 분반 한국어 수업, 한국문화
- 역사 체험 활동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참가자격: - 만 10~13세 재일동포와 동반부모(재일동포)
- 합숙 연수(강의, 여행) 등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해외 출국에 관한 거주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자

선발기준: - 한국어 학습 의지(자기소개서에 작성)
- 관할 공관 추천 내용 및 추천 순위
- 기타 참가자 선발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 서류 미비자 제외

인솔 스태프(통역 및 생활지도 담당):

- 한국어와 일본어 능통자(한글학교 교사 또는 현지학교 한국어 교사 우선선발)
- 인솔 스태프, 캠프 스태프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자

선발절차: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한 선발 심의에 의함

신청기한: 2020.4.17(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공관 혹은 민단지부, 지방본 부에 제출

문의: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 고주영 대리
+82-64-786-0264 / jkoh17@okf.or.kr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한국에서 버틸 용기 민원정(바른북스)

세계 127위의 명문대학에서 유일한 한국인 교수로 재직하면서, 화려한 모습 뒤 일상의 담담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칠레 폰티피셔 가톨릭대학교 역사 및 아시아 연구센터 민원정 교수의 실제 이야기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타지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는 일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다. 칠레라는 나라에서 한국인으로 또 대학교수로 살아가며 일상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버티는 원동력을 찾았다고 한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자.



'재외동포 원로예술가 구술채록-일본편'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에서는 2013년부터 음악 연구의 성과를 담은 '한민족음악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도서는 한민족음악총서 8편으로 '재외동포 원로 예술가 구술채록-일본편'이다. 해당 자료는 재외동포

원로예술가의 삶을 구술채록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일본편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등 세계에 흩어져있는 재외동포 예술가의 구술채록을 담은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지역 재외동포 원로예술가의 이야기를 현지에서 직접 구술채록을 진행하며, 문화예술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자 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천재 화가, 변월룡' 문영대(컬처그라퍼)

한국인 최초 미술학 박사, 이민족이라는 한계를 딛고 러시아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로 지냈던 인물이 있다. 천재 화가이며 한국인이었던 변월룡의 존재를 정작 한국 미술계에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의 작품 속에는 한국의 기상이 담긴 소나무와 6·25 전쟁 역사의 아픔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이념으로 얼룩진 시대 상황 속, 잊혀졌던 천재 화가 변월룡의 일생을 만나보자.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합 [통]

합니다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5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